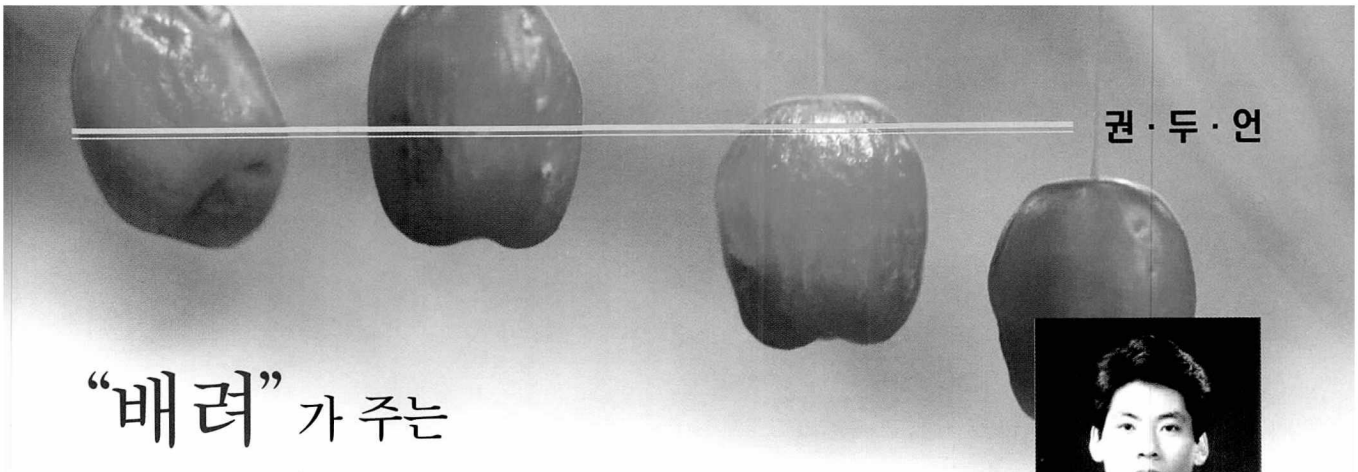

"배려"가 주는 "따뜻한 세상"

이 상 도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이사
/ (주)동양환경 영업부장

임금 및 단체 협상 등으로 인하여 연례행사로 치러졌던 모회사의 노동쟁의가 10년 만에 파업 없이 타결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아!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는 것이 세상인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단, 일분만 생각을 해도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0년 만에 무분규 노사협의! 이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고, 가슴이 뭉클한 소리인가! 이렇듯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얻고자 하는 것을 조금만 양보를 하고 살아간다면 아주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들 따뜻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지금의 우리들 세상은 어떤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살아도 부족한 삶인데, 왜 그렇게들 나쁜 것만 보려 하고, 나쁜 것만 들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려 해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서로 반목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들만 판을 치는 것 같다. 누가 정치를 잘 하네, 못 하네 하며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정치인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정치인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비판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 속에 동참이라도 하지 않으면 바보라도 되는 듯 너도 나도 그러한 비판들 속에 업혀들 간다. 물론 찾아보면 가슴을 찡하게 하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다. 아니 내가 좋은 것만 보려하지 않아서 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기사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썩 좋지마는 않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앞선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금은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

"3초의 여유"라는 글에 접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나도 언젠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 스스로도 앞으로는 3초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배려를 함으로써 상대방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정말 이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며 3초의 여유를 다시 한 번 떠올려본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 말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라는 이야기라고 해석하고 싶다. 예수, 석가, 공자 같은 성인들이 제각각 다른 표현으로 인간의 도리를 강조했지만 공통된 원칙은 서로를 이해 해줄 수 있는 바로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것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돌을 하나 치워주는 것, 양보운전 하는 것, 추운 겨울 노점상 할머니의 물건 하나를 사주는 것 등, 내 자신보다 힘이 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내 힘을 빌려주는 것들이 남을 위한 배려임과 동시에 따뜻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배려가 우리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줄 것이다!'